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깎는 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문화재 사랑은 번호순이 아닙니다”

‘문화재 보존과 전시에서 이제는 활용을 통한 향유와 감동으로.’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동시에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재의 가치도 국가가 정해준 번호 순서가 아닌, 직접 보고 만지며 느끼는 감동의 크기로 매겨지고 있다.

이들 시민들이 정부의 문화재 정책에서 소외된 비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들 문화재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를 확대해보면 사찰 문화재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불교의 제1포교사’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 관심의 키워드는 ‘감동’과 ‘활용’ ‘...확대방안 공청회’ 보존 전제돼야 의견도

4월 28일 열린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방안 공청회’는 최근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참여하는 시민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그 의미와 정책적 참여방안을 진단하는 자리였다.

특히 안동에서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권두현(안동대 민속학과 강사) 씨는 문화재 현장에서의 예술 공연과 안동문화재지킴이,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운동

등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권 씨는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재 현장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감동’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민들은 문화재 현장에서 ‘성주풀이’를 보며 문화재와 예술 공연으로부터 이중의 감동의 느끼고, 문화재지킴이들은 문화재 주변을 청소하면서 문화재와의 거리를 좁히고 동시에 설명

이 줄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권 씨는 ‘불교의 제1포교사는 사찰 문화재라 생각한다’며 ‘불교문화재를 사람들의 유해한 손길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해 시민들이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동지역의 시민참여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는 점이다. 1996년 만들어진 안동문화재지킴이는 매일 마지

막 토요일을 ‘안동 문화 가꾸는 날’로 정해 ‘즐거움 문화재 소풍’을 떠나는데, 모든 회원을 가족단위로 받고 있다. 소풍의 일회적 성격을 보완하기 위한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운동’도 가족이 함께 특정문화재의 명에 관리인이 되는 제도다. 최근에는 지역 언론과 시민, 농민들도 동참해 참여하는 시민 층이 두터워지고 폭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흥선 스님(직지사 성보박물관장)은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과 감동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활용은 보존과 보호라는 전제가 유지된 다음에 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한 달 내내 ‘봉축특집’...금주 36면 발행

‘현대불교’는 불기 2548년 부처님 오신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봉축특집’을 연속 발행합니다. ‘현대불교’의 특집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봉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봉축특집 주요 주제

- ▶첫째 주 (5월5일자) 나눔의 손잡기
나누면 모두 행복해 집니다 — 9면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열기 뜨겁다 — 10면
‘나눔=행복’ 등식 만들기 — 11면
찾아보면 나눔 것 많아요 — 12면
벚나간 웰빙 열풍(3회) — 35면
- ▶둘째 주 (5월12일자) 해외의 불교 붐
불교 공부하는 타종교인
- ▶셋째 주 (5월19일자) 禪버림을 이어간다
저명인사들의 초파일 감회
- ▶넷째 주 (5월26일자) 줄어드는 불교 인구, 대안을 찾아라
길에서 맞는 부처님 오신 날

‘직지세계기록유산상’ 제정

유네스코집행위서 결정

‘직지심경’의 이름을 딴 ‘직지세계기록유산상(Jikji Memory of the World)’이 제정됐다.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문화과학기구)는 4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69차 집행위원회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한 인물에게 줄 상의 이름을 ‘직지세계기록유산상’으로 결정했다. 이 상은 2년에 한번 정주사가 정

한 ‘직지의 날’에 청주시나 파리에 서 시상하며, 시상금은 3만 달러(약 3470만원)로 정주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첫 시상상은 2005년 9월로 수상자 선정과 시상식 진행은 유네스코가 맡는다.

그동안 직지사 제정을 추진해온 정주사 직지세계화추진단은 “이 상의 제정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심경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가 다시 한번 인정할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유진 기자

北 용천 지원 “불심 모으자”

각 종단·단체 모금운동·물품 접수 이어져

북한 용천 참사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긴급지원에 나서는 등 활발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조계종·태고종·천태종·진각종·총지종은 4월 26일과 27일 신도들과 국민들에게 북한 돕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서는 한편, 모금 제와 구호물품 접수처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한불교청년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경북대구본부 등

불교계 단체들도 6월 초순까지 온라인 모금, 거리 모금, 법회 모금 등의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대북지원사업을 펼쳐왔던 한국 JTS는 긴급 지원을 위해 활동가 2명을 4월 25일 중국에 급파하는 한편, 28일에는 의류 1만1천벌과 양초 4천여 개를 용천에 지원하고 계속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3세계 및 북한동포 지원사업을 펼쳐온 지구촌공생회와 대구 영남불교대학은 4월 28일 용천 참사 희생자 위령제 및 부상자 회복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모금운동도 벌이고 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맨 왼쪽) 등 한국방문단과 스리랑카 스님들이 ‘조계종마을’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스 ‘조계종마을’ 4월 29일 준공

조계종 사절단, 스리랑카 종정 등 2천여명 참가

스리랑카 ‘조계종마을’ 준공식이 조계종과 스리랑카 불교지도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9일 스리랑카 라투나푸라에서 봉행됐다.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의 전통 삼귀의례로 시작된 준공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인종과 국가는 다르지만 모두 불자라는 점에서 큰 유대감을 갖고 있다”며 “조

계종 마을은 한국 불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찬드리카 쿠마라톤 스리랑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한 존세 나기나트라 법무부장은 “오늘 준공식이 양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과 고통을 나

누고자 한국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오늘 조계종마을 낙성식을 고한다”며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고 고통은 환희로 변할 것”이라고 축원했다.

이날 한국 방문단은 현지 주민들에게 대형 텔레비전과 벽걸이 시계, 내의 등의 생활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조계종 마을’은 지난해 5월 스리랑카에 큰 수해가 발생하자 한국 불자들이 ‘자비의 수재성금’을 모금해 만들어졌다. 스리랑카=남명우 기자

‘할’

현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8, 29면에서 만나세요) -

현대불교 구독료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선원장 초청대법회(회향법석)
설정 스님 5월 9일 오전 10시 조계사

Since 1991 늘 푸른 청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동행포럼·가산학회

- 대주제: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
동행포럼은 가산법인의 설립이념에 기초하여 인류의 道徳 尊嚴에 無上의 價値를 奉인한 修行文化를 대중화하고 복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6차 동행포럼:
연구자그림 신사 초청 수행세미나
일시: 2004년 12월 14일~12월 15일
장소: 주재 빌딩 및 호문 그리고 수행세미나
- 전국연합연구공동체 가산학회
● 불교학분과·불교와 인문·사회과학분과·불교와 자연과학분과·불교예술분과

교육사업/불교원전전문학림상학원

- 취지와 목적
佛敎原典專門學林 三學院은 佛敎의 慧明과 佛敎의 修行 傳統을 眞의적으로 계승하는 扶宗傳敎의 道場.
- 교육과정
· 불교원전연구과정
· 선전강독· 한국불교문화강독· 원전논서연찬
· 불교어학연수과정
· 불교한문강독· 범어연습초급1· 티베트어연습· 발리어연습
· 기초학술과정· 불교근본교설의 이해
- 실험형성 원서교부수 / 일반수강생은 수시접수 가능

학술·교화·출판사업

- 가산학회 권 『佛山學報』 창간호~10호, 제11호 근간
- 이시관 저 『가야산해인사지』 / 『한국고승비문총서』 중간(1~7권) 『한국불교의교전연구』 / 『남북전통유물장비교연구』의 다수
- 가산삼학총서
· v001 율장부 범해 역주 『고려만 선원정규역주』
· a002 논장부 임승택 역주 『학미삼비대각역주』
· s003 선종부 김응옥 역주 『진국사어록』(근간)
· e001 연구부 정찬위 『일천년 한국의 신지식』(근간)
· e002 연구부 정병삼 외 『지성의 광장』(근간)
- 세미나 및 기획자료집
『佛敎佛敎文化思想史』(상·하) 등 다수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본 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佛山佛敎大辭林』 회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최대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치한 1차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전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현재 1·2·3·4·5·6권 출간, 7권 근간·전15권 내차 속간 예정
- 전권금액 2,180,000원 / 예약회원은 20%할인하여 1,750,000원(우편료 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전』 전권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6개월로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